채용 경로별 비용·성과 개선안

한결물류(가명) 평택센터 운영팀 | 2026-03-31 기준

결론

채용사이트B를 즉시 중단하지 않고 3개월 시험을 제안한다. 광고비를 줄이고 채용사이트A와 직원추천에 일부를 배분한다. 채용 목표·채용 기준은 유지한다.

근거

2025년 모집분 직접 채용비 4,000만 원, 입사 66명, 90일 재직 50명이다. 채용사이트B는 1,200만 원으로 입사 12명·90일 재직 6명이다. 입사 1인당 100만 원, 90일 재직 1인당 200만 원이다. 직원추천은 보상 400만 원을 포함해 입사 1인당 20만 원이다.

3개월 예산안 · 예시

채용사이트A 300만 → 375만 원, 채용사이트B 300만 → 150만 원, 직원추천 100만 → 125만 원, 소개업체 300만 원 유지. 합계 1,000만 → 950만 원. 광고비 75만 원 감소, 추천보상 25만 원 증가, 직접 채용비 50만 원 감소다. 소개업체 예산은 계약 조건 확인 전까지 유지한다.

연간 단순 환산 · 예시

같은 조정을 4분기 유지한다면 직접 채용비 4,000만 → 3,800만 원으로 연 200만 원 감소한다. 광고비 감소 300만 원에서 추천보상 증가 100만 원을 뺀 값이다. 확정 실적이나 채용 성과 예측이 아니다.

시험 목표와 중단 조건

분기 지출 상한 950만 원, 입사 목표 16명(입출고 관리 8명 이상·배차 관리 8명 이상), 90일 재직 목표 13명을 제안한다. 목표는 예측이 아니다. 4주 시점 직무별 면접 수가 시험계획보다 부족하거나 공석이 길어지면 O팀장과 재검토한다. 마지막 입사자가 90일을 채운 뒤 최종 평가한다.

담당과 확인할 것

김OO 대리: 주간 지출·지원·면접·입사 기록, 중복 경로 정리. O팀장: 직무별 필요 인원과 채용 속도 점검. 직원추천 확대 가능 인원, 소개업체 계약 조건, 4주 면접 목표 수는 확인 필요다. 개인의 합격 여부는 이 표로 정하지 않는다.

한계

2직무를 따로 비교해도 채용사이트B의 입사 1인당 비용이 채용사이트A보다 높지만, 직무 난이도·모집 시기·후보자 구성의 영향을 배제한 결과는 아니다. 급여와 면접 업무시간은 비용에서 제외했다. 90일 재직은 90일째 재직 여부로, 현재 재직 상태와 다르다.